

##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관상동맥 중재술의 장기 성적 비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과학교실

선희경 · 한상엽 · 한금현

### A Comparison of Long-term Outcome of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and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in End Stage Renal Disease Patients

Hui-Kyoung Sun, Sang Youb Han, Kum Hyun Ha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l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심혈관계 질환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사망률과 이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특히 관상동맥 질환의 이환율이 높다.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관상동맥 재개통술인 관상동맥 우회로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과 관상동맥 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artery intervention, PCI)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침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유지)투석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CABG와 PCI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었다. 199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을 내원한 유지투석환자 중 허혈성 심질환으로 CABG와 PCI를 시행 받은 1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CABG는 통상적인 심폐우회상태에서 시행되었고, 사용된 이식혈관은 내경유방동맥과 복제정맥이었다. PCI는 통상적인 관상동맥 조영술후 혈관내경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의미있는 협착이라 정의하고, 스텐트를 시술하였다. 사망자료는 전화 인터뷰 및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전체 104명의 환자중 29명은 CABG를 받았고, 75명은 PCI를 받았다. 두 군간 환자의 일반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3개 이상의 혈관을 침범한 다혈관 질환과 심실구혈률 (ejection fraction) 30% 미만의 중증 환자수는 CABG군에서 더 많았다. 두 군간의 평균 재원율은 CABG 군이  $42 \pm 33$ 일로 PCI 군  $11 \pm 10$ 일보다 의미있게 더 길었다. 관상동맥 중재술의 재차 재관류술의 빈도는 CABG군에서 2명, PCI군에서 7명이었다. 생존율 비교에서 두 군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다혈관 질환에 대한 하위그룹분석을 한 비교에서도 두 군간의 생존율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관상동맥 재개통술의 방법으로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관상동맥 중재술은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

**Key Words:** 관상동맥 우회로술, 관상동맥 중재술, 말기 신부전 환자  
CABG, PCI, End stage renal disease